

1989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 에세이

KIC와 나



머리말

우리 모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공동체의 한 가족입니다. 잠시 머무른 분도 있고 30년을 여기서 근무하고 봉사한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KIC와 함께하고 있을 줄 압니다. 떠난 분들에겐 기억이, 근무하고 있는 분에겐 일상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30년을 맞아, 여러 의미 깊은 작업을 준비하면서, 그 일환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연구원의 편린을 함께 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30년사와 함께, 우리의 삶과 인연을 이렇게 <KIC와 나>라는 에세이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서로의 인연과 애정을 확인하고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연락처를 정비하고, 근무경력도 정리했습니다. 서류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옛 기억과 인연을 퍼즐 맞추듯 찾아내는 건,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구원에 얽힌 이야기들, 연구활동 과정에서의 여러 애로점들, 행정업무를 정비하는데 남몰래 고뇌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싶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짧은 시간 내에 원고가 모여질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적극 호응해주셔서 이렇게 에세이집을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확하게 쓰기 위해 연구원에 오셔서 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책 한권을 발간한다고 해서 기쁠 뿐 아니라, 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재확인할 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이야기 모음답게 참으로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조사과정에서의 남모르는 애환도 담겨 있습니다. 연구발표와 관련된 여러 상황과 논쟁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초창기엔 음주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들, 스포츠와 취미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이 실감있게 펼쳐집니다. 우리의 공간무대인 우면동과 양재천 주변의 풍경의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맨 땅에서 일구어내던 개척사도 흥미진진하고, 국제활동을 개척하기 위해 네트워킹한다고 지구촌을 돌며 땀을 뻘뻘 흘리던 대목에 이르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일화와 함께 재미있는 사진까지 모아주시니 다채로운 정경이 펼쳐집니다. 더 적나라하게 쓸 대목도

있었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절제의 미학을 통해 동료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주신
쓰인 대목과 생략된 대목을 섞어가며 상상하는 재미가 가득합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술술 읽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다가 잠시 회상에 잠겨, 필
자가 못다한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으로 보충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
나의 이야기 자체가 완결된 게 아니라, 저편에 잠겨있던 기억을 소환해내는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들 사이에 다시 만나면, 이 에세이에서 출발하
여,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의 이야기거리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을 일독하면서 남는 키워드는 “인연”과 “감사”입니다. 함께 하므로 소중한
인연이 생겼고, 그 인연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직장생활
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고, 소소한 기쁨과 소소한 갈등도 있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
는 해변, 바람이 없는 대기, 떨림이 없는 목소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파도와 바람과
떨림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니 감사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이 에세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옥고를 주신 분은 모두 36분으로, 현재 연구원 밖에 계신 분이 24분
이고, 연구원 재직 중인 분이 12분입니다. 원고를 배열하는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되, 격조와 차원이 남다른 김일수 전 원장님의 글을 제일 앞에 모시자고 했습니
다. 바쁜 중에서 기꺼이 기고해주신 모든 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에세이집
의 대주제를 기획하고, 연락처를 정비하고, 원고를 모으고, 교정·편집하는 실무작
업을 위해 함께 수고해준 이승현 형사법제연구실장을 비롯하여, 안성훈 연구위원,
박성훈 연구위원, 김민영 부연구위원, 서주연 전문연구원, 이상현 재무회계팀장,
김광수 전문조사원 등 에세이 발간TF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출판분을
만들어내기까지 수없이 많은 디자인 변경과 출판형태 완성을 위해 수고해준 김병
규 지식정보팀장과 팀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세이집을 통해 한국형사정
책연구원의 지나간 30년을 함께 추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5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 인 섭**



KIC와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 에세이

CONTENTS



김일수	나의 후일담	9
강석구	연구원과 함께 걷고 싶은 길	17
권창모	KIC와 나	23
금융명	KIC와 나, 그리고 교정	33
김경찬	30세 한국청년 형사정책의 고뇌와 바람	41
김기병	짧은 5개월 동안의 소회와 소망...	51
김병규	KIC에서의 추억과 그리움	57
김상희	연구발표를 놓고 벌어진 엉뚱한 논쟁	67
김성언	내 젊음을 담은 곳, '형정원'	81
김영규	양재천 벚꽃 아래에서	93
김종대	"함께 하므로"	99
김준호	엇그제 같은데..	111
김혜정	KIC에서의 추억 - 고마운 연구원, 고마운 사람들	119



박성훈	KIC에서 첫 경험들	125
박준휘	연구원과 연구에 대한 나의 뒷담화	133
박철현	‘약자 서브’	155
박형민	날카로운 첫 연구의 추억	161
선우영	因緣	167
신동일	마지막 출장	173
신의기	화양연화(花樣年華)	181
오영근	형사정책연구원의 추억	189
윤해성	제4차 아시아범죄학대회를 회고하면서....	197
이경재	KIC와 나: 떠오르는 아련한 추억들	205
이법호	KIC, 우리는 하나	211
이승현	KIC에서의 13년을 추억하며...	217
이영주	형정원 파견검사의 추억	223
이원상	KIC와 나 : 나의 학문의 고향	231
이 윤	2011년, 따스함과 날카로움의 기억들	237
장규원	그래도 내일이 있어 산다	243
장영민	형사판례연구회의 발족과 형사정책연구원	251
장준오	KIC의 유엔기관 가입과 VFAC사업의 뒷 이야기	257
최수진	KIC와 함께한 4계절	265
최영신	‘형정원 가족’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271
최인섭	KIC와 나	277
한상훈	연구와 탁구로 즐거웠던 연구원 시절	303
황태정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	309